# 치정극 이상의 긴장감…두 드라마 속 '중년'은 다르다

## 중년 남녀 그린 '미스티'·'키스 먼저 할까요'

## 안개 속 숨겨진 욕망 vs 새로운 삶의 열정 모색

'middle age', 중년은 어떤 나이일까? 일찌기 공자께서는 마흔을 불혹(不惑-마음이 흐려져 갈팡질팡하지 않는 나이)라 하셨고, 오십을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명을 알게 된 나이)이라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공자께서 정의를 내린 나이의 한계는 70세였다. 인간이 대략 70년 쯤 산다는 전제 아래 '불혹'의 마흔이 등장하고, '지천명'의 오십이 규정된다. 그렇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마흔' 하면 인생을 제법 살아낸 나이였다. 하물며 오십은 노년의 문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백세시대'가 도래했다. 마흔에 혹하지 않고, 오십을 노년이라 하기엔 자기 앞가림하고 살아가야 할 날이 오십 년이나 남아 버렸다. 또한 88만원 세대가 등장했고, 젊은 세대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나이는 자꾸만 미뤄졌으며 그에 따라 결혼도 늦어졌다. 서른만 돼도 '노'자가 붙던 시대가 무색하게, 이제 마흔 정도 되어야 안정을 찾고 결혼을 할 만한 시대가 되어간다.

그런 시대에, '중년'은 과거의 안정적인 불혹 세대가 아니라, 한참 세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한참'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중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두 편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찾아왔다. 지난 2일 첫방을 선보인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와 20일 4회 연속으로 첫 선을 보인 SBS 월화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이다. 이들 두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주제의식을 통해 우리 시대 중년의 코드를 살펴보자.

### ▲ 안개 속에 숨겨진 욕망

케빈 리(고준 분)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미스티'에선 욕망이 분출하고 충돌한다. 케빈 리의 등장 이전부터 고혜란(김남주 분)은 '무의식'적으로 그와의 과거에 집착한다. 하지만 그녀의 '숨겨진 욕정'은 남편 강태욱(지진희 분)과의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의 반증이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케빈 리에 흔들리지만 그녀를 더 애닯게 만든 건 지난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목표인 청와대 대변인이다.

드라마는 몸과 몸으로 부딪치는 중년 남녀들의 관계를 매개로 사건이 벌어지는 듯 묘사하지만, 드러난 육체적 욕망 이면에 숨겨진 건 사회적 욕망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로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빚어지는 욕망, 9시 뉴스 메인 앵커 자리를 두고 싸우는 선후배 앵커들…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배태된 사회적 욕망들이 케빈 리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육체적 욕망으로 재조직되고 결핍, 분출되면서 진범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살인사건으로 펼쳐진다.

'미스티'속 중년의 남녀는 육체적 욕망 만큼이나, 이 사회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며 쟁취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들이다.

7년간 9시 뉴스 메인 앵커 자리를 지킨 것도 모자라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기만을 바라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고혜란이나, 그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그녀의 전 애인조차도 빼앗으려고 하는 하는 한지원(진기주 분)이나, 케빈 리를 남편으로 소유했지만 결핍을 느끼는 서은주(전혜진 분)나 모두 자신이 갖고자 하는 바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바로 이 양보 없는 욕망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그래서 '미스티'는 치정극 이상의 긴장감을 낳는다. 그곳에 미혹되지 않는 중년의 안정감이란 없다.

### ▲ 상실의 세대, 중년

'미스티'가 여전히 욕망하고 그 욕망을 실현해야 하는 나이로 중년을 그려냈다면, SBS의 '키스 먼저 할까요?'는 그 반대의 지점에 자리잡은 듯 보인다. 이미 '애인있어요'(2015)를 통해 중년의 사랑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화제가 된 배유미 작가의 새 작품 '키스 먼저 할까요?'는 '애인있어요'처럼 상흔을 지닌 중년의 남녀로부터 시작된다.

마흔 다섯 갱년기를 걱정해야 할 나이, 파란 알약을 입에 털어 넣으면 '비아그라'라 오해 받기 딱 좋은 나이, 그 나이가 된 남녀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배유미 작가가 그려낸 마흔 다섯은 각자 마흔 해가 넘는 삶을 살아내면서 등이 휘어지도록 버거운 개인사를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혹'하고 싶지 않은 나이, 하지만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아서 무서운 나이, 고독사가 걱정되고, 가진 것 없이 나이드는 게 무서워지는 나이.

그래서 그들의 만남은 그 '상흔'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변 사람들의 강권 아닌 강권으로 시작된 소개팅, 하지만 '안순진(김선아 분)'이라는 이름만 보고 그녀를 만나러 나간 손무한(감우성 분)에게는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상실의 공감이 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앞에 나타난 안순진은 누수와 관련된 분란의 이웃이요,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은 채 대놓고 그를 호텔방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소개팅녀다. 이 현실과 기억의 골 사이에서 어긋나고 다시 만나는 관계를 통해 드라마는 차근차근 그 상실의 역사를 치유하고, 미래를 기약하고자 한다. 상실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열정에 대한 모색이다.

욕망의 '미스티'와 상실의 '키스 먼저 할까요?'는 중년의 양 극단과도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주제 속에서 풀어나가는 실타래가 그려내고 있는 건, 살 만큼 산 세대로써의 중년이 아니라, 아직 한참 살 만한, 그리고 살고 싶은 나이 중년이다.

세상사 버리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만한 나이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는 100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여전히 젊어야만 하는 우리 시대의 중년에 대한 강권과도 같은 명제를 대변한다. 단지 그 열심히 살아야 할 시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뿐.

## '라디오스타' 출구 없는 매력 이기광이 이끈 시청률 1위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이기광이 '국가대표 아이돌' 임을 인증하며 수요일 밤 큰 웃음을 선사했다.

그는 아이돌 최초를 꿈꾸는 하이라이트 5인의 '동반입대' 꿈까지 밝혀 모두를 흐뭇하게 하는 동시에 남다른 근성과 프로의식을 뽐내는 것은 물론, 만능 재주꾼의 면모로 10년차 아이돌의 내공을 제대로 보여준 것. 이기광과 함께 출연한 박성광, 산이, 바비 역시 저마다의 직진 매력과 마이웨이 토크로 시청자들의 혼을 쏙 빼놓았고, '라디오스타'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1일 수요일 밤 방송된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김구산 / 연출 한영롱) 556회는 '알 게 뭐야 마이웨이' 특집으로 이기광(하이라이트)-박성광-산이-바비(iKON) 매력 넘치는 직진남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 눈치 보지 않고 '직진 입담'을 뽐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스타' 1부, 2부는 각각 수도권 기준 6.7%, 5.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은 주제처럼 '마이웨이' 토크가 이어졌고 결국 네 명의 게스트들의 입담은 물론 하이에나 같은 네 명의 MC들까지 주거니 받거니 토크 봇물이 터져 시청자들을 쉴 틈 없이 웃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이기광은 10년 차 아이돌의 특별한 내공을 제대로 발산했다. 시작부터 하이라이트 멤버임을 강력하게 어필한 그는 '축구' 얘기로 꽃을 피우며 웃음을 참지 못하게 했다. 그는 윤두준과의 축구 실력 우위를 묻자 철저한 분석을 거쳐 결국에는 개인기가 화려한 윤두준은 풋살을 잘한다는 결론을 내려 모두를 웃게 했다. 막내 손동운에 대한 냉철한 연기 평가는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이기광은 손동운이 최근 뮤지컬 '모래시계'에 출연 중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알리면서 "동운이가 발음도 좋고 표현도 좋고 다 좋다. 이번에 (모래시계에서) 액션신이 많은데 몸을 잘 못 쓰는 느낌이다. 움직임에 있어서는 아쉬웠다"고 냉철한 평가를 내린 것.

특히 이기광은 하이라이트 멤버 5명의 동반입대 꿈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선례가 없기도 하고 동시에 전역하면 활동 시기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 또 다시 프로 아이돌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막내 손동운을 설득해야만 하는 일이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 그는 "은연중에 동운이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정리해 또 다시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손동운은 이날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시시때때로 소환되며 큰 재미를 안겼다.

개인 연애사 역시 철저한 방어를 했다. 팬들과 '단체 수련회'를 하고 싶다는 것은 물론, 중학교 3학년 때가 연애사의 끝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기광의 해맑고 순수한 모습은 10년 동안 그의 곁을 지킨 팬들을 위한 남다른 배려와 애정이 담겨 있어 모두를 흐뭇하게 했다.

여기에 MC 김구라가 던진 '이기광의 이광기 개인기' 드립을 그대로 받아 제대로 살리는 것은 물론, 솔로 AJ였던 시절의 '댄싱슈즈' 무대는 발군의 댄스 실력과 노래 실력까지 엿보게 하며 '만능재주꾼' 이기광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냈다. 그룹 멤버를 두고 마이웨이 토크를 이어가고, 동반입대를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만으로 하이라이트의 특별한 팀워크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었다. 이기광은 하이라이트 그 자체였고, '국가대표 아이돌'로 불리어도 될 만큼 근성과 프로의식, 재주까지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라디오스타'를 통해 증명했다.

박성광, 산이, 바비 역시 만만치 않은 입담과 재주꾼의 면모를 보였다. 바비는 최근 아이콘이 음원 1위를 하며 소속사와 사장님의 관심과 관여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거침없는 입담을 뽐내면서도 한편으론 야생마 같은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다재다능한 개그맨 박성광은 애견 광복이로 시선강탈을 하더니 마사지 실력을 뽐내며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고, 영화 주연배우로 우뚝 선 산이는 곳곳에서 엉뚱하고 유쾌한 힙합 스웨그를 뽐내며 시종일관 웃음짓게 했다.

## '친절한 기사단' 센스만점 이수근, 이유 있는 예능 대세

이수근의 예능감이 폭발했다.

2월 22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친절한 기사단'에서는 이수근X윤소희, 마이크로닷X박준형이 각각 2인 1조가 되어, 동계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으로 가는 외국인 승객 물색에 나선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것은 '영어 꿈나무' 이수근의 인터뷰 도전이었다. 이수근은 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기 전 윤소희, 마이크로닷, 박준형에게 자신이 질문하고 싶은 문장을 영어로 구사,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한 후 인터뷰에 나섰다.

발리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 하는 멕시코 부부에게 앞장서서 다가간 이수근은 연습한 질문은 물론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인터뷰에 성공했다. 특히 긴장된 모습을 보였던 이수근은 그 와중에도 직접 자신이 한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임을 어필하며 '뼈그맨'다운 면모까지 드러냈다.

이후 '친절한 기사단'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호주에서 온 외국인 승객들을 섭외했고, 이수근과 윤소희가 에스코트에 나섰다.

에스코트 중에도 이수근의 센스는 빛을 발했다. 인도에서 온 한 외국인 승객이 아직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이수근은 승객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열어주고자 강원도의 한 설원으로 안내했다. 그 곳에서 이수근은 눈썰매를 제안하며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외국인 손님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컵라면을 종류별로 준비해 손님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도록 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겼다. 한편, 특별한 의미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친절한 기사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0분 tvN에서 방송된다.

## 오늘의 운세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음력 1월 8일)

▶쥐띠 세월이 갈수록 목표한 일 성취할 운. 근면 성실한 태도로 현 위치에서 전진하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으나 자식 걱정이 뒤따를 수. 3, 5, 10월생 모임으로 과로 운전 시 건강에 이상 올 수 있으니 늦은 밤 운전은 삼가라.

▶소띠 그동안 혈육 간 다툼으로 불편했으니 화해로써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어떨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나. 지난 일 훌훌 털고 새롭게 헤쳐나갈 때 자식도 상처받지 않는다. 과음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1, 5, 9월생은 파란색이 길조.

▶호랑이띠 자기 마음을 자신이 갈고 닦아야지 남의 말에 의존하며 나약함을 보이면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ㄱ, ㅇ, ㅊ 성씨 음주로 인한 순간적 실수가 예상되니 이성을 잃지 말고 선, 후배를 대하라.

▶토끼띠 지금은 가족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2, 5, 7월생은 애인과 모처럼 만나 기쁜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언행에 신경을 쓰라.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문다면 먹구름이 다가오니 손윗사람 말을 유념하라.

▶용띠 상대의 솔깃한 말을 물리칠 수 있는 과감한 성격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다. ㅁ, ㅅ, ㅇ 성씨 약하면 약한 만큼 마음의 갈등이 뒤따른다. 한길을 택해 가정을 이끌라. 모처럼 모인 가족, 친지와 화합하지 못 하고 언쟁이 있을 수.

▶뱀띠 비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때가 돼야 온다. 시기를 잘 포착하라. 처음부터 갈 수 없는 길이라면 가지 말라. 중도에 뒤돌아 오면 시간과 다리만 아플 뿐이다. 1, 4, 9월생 윗사람 조언이 보약이 되니 쓰더라도 참고 먹으라.

▶말띠 진행하는 사업은 자신 있게 하고, 부부의 뜻이 일치해야 성취할 수 있다.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실천부터 하라. 욕심을 앞세우지 말라. 손실이 따른다. 4, 8, 11월생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듣는 자가 돼라.

▶양띠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도 힘겨운 상태구나. 자기 능력을 누구보다 자신이 안다. 현실로 돌아가 ㅁ, ㅅ, ㅊ 성씨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먼 길 떠나면서 무거운 마음 벗어던지고 운전에만 신경 쓸 것. 금전으로 친지와 의견충돌 있을 듯.

▶원숭이띠 현재 위치에서 힘들더라도 ㅂ, ㅇ, ㅈ 성씨 인내하라. 남을 딛고 일어서려 하지 말라.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 가족 중 신병으로 고생하는 자 차차 효험이 있겠다.

▶닭띠 자신 있게 조언하는 것은 좋지만,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음주로 인해 오랜만의 친구 모임에서 추태 아닌 추태를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할 것. ㄱ, ㅂ, ㅈ 성씨는 외출을 삼가라. 특히 건강에 주의하라.

▶개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면서 걷는 격이다. 목표 있는 삶을 설계하라. 길이 있다. ㅇ, ㅊ, ㅎ 성씨 3, 4, 7월생은 인간관계에서 회의를 느끼는 격. 이것이 아니다 싶다면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가족 화합이 최상.

▶돼지띠 오늘만이라도 모든 일을 잊고 휴식하라. 그동안 어려운 일을 거론하면 모처럼 가족 만남에서 즐거울 수 없다. 분위기 파악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3, 5, 9월생 형제나 친척에게 도움받을 일 있다. 남, 서쪽이 길 방향.